

“이상의 시는 4차원 설계·건축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것”

지스트 이수정 교수·오상현 씨 논문서 ‘삼차각설계도’ 등 의미 풀어나

이상(1910~1937)의 난해한 시 ‘삼차각설계도’와 ‘건축무한육면각체’의 제목과 일부 내용에 관한 수수께끼가 발표된 지 90년 만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이수정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머세드 물리학 박사과정생 오상현 씨(광주과학기술원 물리전공 2020년 졸업)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4차원 기하학을 토대로 분석하고 해설해 난해한 의미를 풀었다.

그동안 이상의 시 ‘삼차각설계도’와 ‘건축무한육면각체’는 난해한데다 형이상학적인 특징으로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낳았다.

이 교수와 오씨는 “이 시 제목에 나오는 조어 ‘삼차각’과 ‘육면각’, ‘무한육면각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삼차각’은 4차원 공간상의 방향을 추구면

좌표계로 나타낼 때 활용되는 세 개 각도를 말하는데, 이는 세 개의 각도가 하나의 ‘3차원 각도’라는 것에 착안해 고안된 용어임이 밝혀졌다. 또한 ‘육면각’은 각각 4차원 도형의 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4차원 도형은 한 점에서 6개의 면이 만난다는 것에 착안해 고안했다. 연구팀은 ‘육면각체’는 각각 4차원 도형, ‘무한육면각체’는 무한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4차원 도형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교수와 오씨는 “이 논문으로 이상의 초기 시가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4차원 공간에서의 설계와 건축을 문학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였음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어언어학회 학술포럼이 발행



이수정 교수 오상현 씨

하는 'Journal of Korean Culture' 54호(2021년 8월 31일)에 게재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광양 서천에 토종어류 방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양진식) 직원들이 최근 광양시 서천에 토종어류를 방류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물사랑 나눔펀드'를 활용해 행사를 준비했다. 광양시와 주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도지부도 동참했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제공>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전통시장 활력 회복 프로젝트 진행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임경준)는 최근 광주 양동시장에서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및 소외 계층 따뜻한 명절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인들이 십시일반 후원한 1000만원의 성금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해 소외 이웃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0여곳에 후원품을 전달했으며, 이날 초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 가정에 소고기 국거리, 당면, 잡곡밥쌀로 구성된 식자재 키트 2500명 분을 14개 지역 복지기관에 기부한 바 있다.

임경준 회장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직면해 지역 경제가 위축돼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선대 강성승·안규백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강성승 교수 안규백 교수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 공학과 강성승 교수와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안규백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에서 수여하는 제31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매년 창의적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강성승 교수는 ‘무등산용화암과 입석대 주상절리의 공학적 특성’ 논문으로 이학 분야 우수논문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안규백 교수는 ‘최정규열전파정지인성 측정법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공학 분야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포럼광주형일자리, 적십자에 코로나극복 성금 전달



포럼광주형일자리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에 전달했다.

성금은 포럼광주형일자리 회원 40명이 재난지원금의 10%를 기부해 모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은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캠페인에 참여해준 포럼광주형일자리 회원분들께 감사하다. 귀하게 모인 성금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 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의료진들과 재난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50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10 좋은아침
[10]	00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4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꿀잼 영화가 좋다 40 지구촌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45 나의 살던 고향은(재) 50 온동맞춤 5분 레시피(재) 55 UHD 스포터	00 달리와 감자탕(재)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똑딱구조대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추석특집 펫 비타민(재)	00 12 MBC 뉴스 20 특집 100분토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월드컵(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한국의 인류유산 55 나의 살던 고향은(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팡팡 다이노 45 반짝반짝 달남이	35 스튜디오 K(재)		00 뉴스브리핑
[3]	00 마법소녀 디디 2 15 출동! 유우구조대 2 30 어린이 동물티비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 2(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생활의 달인(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2 15 몬스터 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25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자 토론회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당신이 흑하는 사이 2(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빨강구두	05 생방송 연공복권 720+ 10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달리와 감자탕	00 극한데뷔 야생돌	00 흥천기 모아보기 - 그녀의 이름은 흥천기
[10]	00 기후위기가 특별기획 4부작 다큐 인사이트 50 추석 특선 완벽한 행성 지구	40 추석 기획 살리는 남자들(재)		30 당신이 흑하는 사이 2
[11]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00 광주MBC 다큐플러스 핑크피쉬	
[12]	10 이수 픽 쌤과 함께(재)	20 추석특집 감성로드다큐 한 번쯤 멈춤 수밖에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20 검은태양(재)	0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사어 울리와 울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그리스 로마 신화 - 올림포스의 별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07:00 로보가 폴리	12:10 EBS 부모	19:05 미스터 마구
07:15 두디다쿵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명의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5:25 클래스 e	<실크 로드 따라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신비한 동서양의 만남, 터키>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페파 피그	21:30 한국기행
09:00 시몽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집 밖이 그리워 4부
09:15 봉우야 말해줘3	16:30 당동맹 유치원(재)	웰컴 투 유 빌리지>
09:30 통통가족	16:50 내 친구 문덕이	21:50 이것이 야생이다 2 - 시련의 계절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한국에 산다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3일(음 8월 17일 甲戌)

<p>36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다. 48년생 생각 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리라. 60년생 한시도 쉬 수 없는 숨찬 하루가 될 것이다. 72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자. 84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떠한 판국에서나 헤쳐 나갈 수 있다. 96년생 정리정돈하기에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4, 87</p>	<p>42년생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54년생 적부의 판단을 해야 할 입장이 된다. 66년생 고역이 따를 수도 있다. 78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90년생 방심하다가 결정한 흥정을 남길 수도 있다. 02년생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13, 55</p>
<p>37년생 가장 직접적인 것이 제일 실속 있으리라. 49년생 괜히 굿어 부수림 낼 것까지는 없으니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61년생 가상이 실제의 상황이 된다. 73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리라. 85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국면이다. 97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7, 57</p>	<p>43년생 거슬러오르던 종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55년생 기묘한 성취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67년생 명분과 이해득실 앞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다. 79년생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 과감하게 차치해둬도 된다. 91년생 지속적이라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03년생 가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8, 75</p>
<p>38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끌 수도 있느니라. 50년생 균열을 메우던면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다. 62년생 속의하는 과정에서 길한 결론에 이르리라. 74년생 원인과 과정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86년생 애지중지하여 왔던 바의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98년생 표출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04, 84</p>	<p>32년생 전체적으로 힘든 국면이니 변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44년생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 56년생 조건이 성립 되었을 때에는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수용하자. 68년생 과거에 대한 경계를 되살리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80년생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92년생 운이 약하다. 행운의 숫자 : 46, 51</p>
<p>39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51년생 뜻이 확실하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63년생 당해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75년생 고생해 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87년생 이채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99년생 능부자 경작하는 심정으로 처리해나가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3, 94</p>	<p>33년생 소박한 행복을 만끽할 운로이다. 45년생 도모한다면 발전에 소망이 있다. 57년생 끈기유를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69년생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81년생 과욕은 망신살을 부르는 법이니 심신을 안정시켜야 할 일이다. 93년생 속단하지 말고 파장 효과까지 예견하고 행동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1, 82</p>
<p>40년생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52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64년생 급급적 빨리 조처하는 것이 좋다. 76년생 깔끔한 외관과 기교 속에 맹점이 숨어 있다. 88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00년생 반세가 전환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5, 95</p>	<p>34년생 걱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46년생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이다. 58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70년생 실제 내용을 확인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 82년생 현실성이 없으니 아예 꿈도 꾸지 마라. 94년생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27, 85</p>
<p>41년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53년생 일마다 뜻대로 되어가니 행복해 하는 판세이다. 65년생 실효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쾌거가 있다. 77년생 평상시에 잘 갖추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덕을 보게 되리라. 89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의 역할이 크다. 01년생 말도 못하고 기습살이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9, 93</p>	<p>35년생 맹목적이라면 오류를 남을 뿐이다. 47년생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만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9년생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71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83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95년생 현저한 행운도 없지만 대고 없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01, 69</p>